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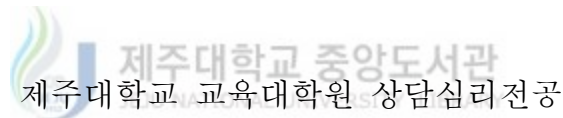
2006년 8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출자 고 민 자

고민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

고 민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의 남·여 만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각각 315명이다. 이들 중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실현성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와 낮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각각 105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검사 도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아실현성 검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역량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연구대상 어머니와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SPSS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실존성과 유아의 사회능력지각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시간성, 실존성, 자발성,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는 신체능력지각이 긍정적이다. 즉,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신체적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지향성·자기 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는 인지·신체능력지각이 긍정적이다. 즉, 행동방식이 내부지향적이며, 자신을 잘 수용하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적·신체적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4.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자기긍정성·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는 인지·사회·신체능력지각이 긍정적이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인간관계가 원만한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적·사회적·신체적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자아실현의 개념과 특성	6
2.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	12
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	16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 절차	23
3. 측정도구	25
4. 자료의 처리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	31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차이	34
V. 요약, 결론 및 제언	43
1. 요약	43
2. 결론	48
3. 제언	50
참고문헌	51
Abstract	56
부 록	59

표 목 차

<표 III-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21
<표 III- 2> 유아의 성별 및 인원수	23
<표 III- 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측정 문항 분류	27
<표 III- 4> 자아능력 지각검사의 하위 영역별 구성 요인	28
<표 III- 5>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측정 문항 분류.....	29
<표 IV-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상관관계.....	31
<표 IV- 2>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4
<표 IV- 3>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5
<표 IV- 4>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6
<표 IV- 5>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6
<표 IV- 6>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7
<표 IV- 7>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8
<표 IV- 8>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39
<표 IV- 9>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40
<표 IV-10>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41
<표 IV-11>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4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유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인식을 형성한다(박성옥, 2005; 이진화, 1993)

유아의 자기인식과 관련된 용어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능력지각 등이 있으며, 이들 용어는 때로는 유사한 의미로 때로는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최영희, 1997).

자기능력지각이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확신의 지각을 말하며(전경숙, 1996), 긍정적 자아개념과 유사하다.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영희, 1997). 한편, 박상미(1999)는 자아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지각으로 보았다.

아동의 역량과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인성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하, 조복희, 1997; 송순, 송희옥, 2003). 자아지각은 또한 성취동기, 대인관계, 정서적 성숙, 학업 성취, 중요한 생활 경험 등의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 발달에 기초적이고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긍정적 자아지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현, 2003; 문영숙, 2002; 이계숙, 2003; 이재천, 1998;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의 자아능력에 대한 지각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해석으

로, 자아개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구체적 판단이 되고 유아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아의 발달과 자아능력 지각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자아지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곽용, 1986; 권순명, 1995; 김세나, 2003; 박미옥, 1994; 서신영, 2003; 원영희, 1991; 윤경화, 1992; 이계숙 2003; 한국유아교육학회, 1999; Turner & Harris, 1984).

유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박성옥, 2005; 이진화, 1993). 유아에 대한 발달과 적응에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강차연, 1995; 서영숙, 2000; 남재임, 2005). Belsky는 자녀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 중에 유아의 특성, 부모가 처해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 뿐 아니라 부모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했으며, Grossman 등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심리적 특성이라고 지적했다(진영희, 2001, 재인용).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적고 적극적인 가정관리를 수행하며(이정숙, 1983),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의 참여도가 높았다(강은영, 1995). 자아실현성은 또한 부부공동참여와 상관이 높았다(강기연, 1988).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홍진영, 2003)과 자녀의 자아존중감(남재임, 2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양육 및 자녀의 역할에 대한 태도, 사회역할 그리고 부부화합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이미숙, 1979).

유아의 자아능력에 대한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밝히거나 양육행동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곽용, 1986; 김세나, 2003, 박미옥, 1994; 박성옥, 2005; 이영환, 백지은,

1997 이사라, 박성연, 2001; 임선화, 1987; 오세연, 1992; 윤정화, 1992; 정수진, 2000, 최영희, 1997)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어머니의 신념(김연하, 조복희, 1997; 전경숙, 1994; 송순, 송희옥, 2001), 어머니의 애착(박상미, 1999; 이영, 박상미, 1995),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역할만족도(진영희, 2001) 등으로 드물게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학적 특성인 자아실현성이 유아에 대한 관심과 양육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남재임, 2005), 이는 어머니 자신의 욕구 실현 뿐 아니라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중요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수준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 관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

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7)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8)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9)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0)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 사회, 신체능력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자아실현의 개념, 자아실현인의 특성,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자아실현의 개념과 자아실현인의 특성

1) 자아실현의 개념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Goldstein(1939)은 자아실현이란 “유기체의 완전성을 향한 노력이며 잠재력의 성취”라고 정의하며, 개인에게는 다수의 욕구보다 하나의 욕구에 의해 행동이 동기화 된다고 가정하고 이 동기를 자아실현이라고 했다(김성희, 1989, 재인용).

자아실현의 개념과 이론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Maslow(1962)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동기 또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욕구의 위계(hierarchy of needs)를 낮은데서 부터 열거하면 신체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이다. 이와 같이 최상의 욕구에 이르는 5단계를 설명하면서 자아실현이란 가장 높은 인간 동기이며, 자기충족을 위한 욕구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다 (윤여경, 1996, 재인용).

Maslow(1970)는 자아실현이란 “자기의 내면적 핵심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full functioning)이다”라고 하였다(김선희, 2000, 재인용). 즉, Maslow는 자아실현이란 “인격의 자아실현이며 인생에 대해 배우려하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충동의 완성, 그리고 심미적 만족의 성취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주체적인 존재이며, 선택하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유롭다거나, 선택한다거나, 창조한다거나, 합리적이라는 등의 표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될 잠재력을 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윤여경, 1996, 재인용).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란 한 개인의 내면적 자율로 활동하며, 평균에 비하여 보다 낙관적인 인생관과 인간관을 갖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곽용, 1986).

Maslow는 그의 최후의 저서 “인간본성의 확장(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1971)에서 자아실현에 이르는 8가지 행동과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자아실현은 충분히, 생생하게 무아의 경지에서 완전히 집중하고 완전히 흡수하는 상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가 인간의 생을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아실현은 각각의 선택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자아실현이 된다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지 잠재 능력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성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고 책임을 지는 일은 자아실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섯째,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단계는 ‘더 나은 생의 선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판단과 우리들 자신의

본능을 좀 더 알아서 그에 대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자아실현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절정경험은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사물을 더욱 전체적으로 보며, 인식을 더욱 통합하게 되고 우리들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욱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자아실현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은 자신의 방어기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윤여경, 1996, 재인용).

자아실현은 Rogers의 이론체계에서도 중요한 동기이며, “인간의 생활 속에는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율화시키고,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려는 충동이 개입되어 있다. 즉 인간의 전반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같은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자기를 증대시킨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능한 한 만족스럽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는 생득적인 충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함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자아실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강조하였다(윤여경, 1996, 재인용).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자아실현의 개념에 대하여 Shorstrom은 과학으로서의 상담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자아실현을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의 궁극적인 능력으로 덧붙여 설명하였다(남재임, 2005, 재인용).

정범모(1977)는 자아실현을 “인간이 타고난 무한하고 풍부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승희(1990)는 자아실현이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윤여경(1996)은 자아실현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하여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해서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홍진영(2003)은 자아실현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이상적 모습 즉, 참다운 자아와 같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 가능성, 잠재력 등을 표현하고 개발하는 발전적인 인간의 성격, 즉 자아실현의 성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아실현이란 ‘선천적으로 타고 난 자기 자신의 내면적 및 잠재적 특성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성이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선천적으로 타고 난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면적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자아실현인의 특성

Kolesnik은 자아 실현인을 “참되고 순수하며 진지한 사람이다. 외부 지향적이 아니라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며,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신에게 가장 풍부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만족스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수용과 승인의 욕구들이 만족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거나, 타인의 존경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의 정력은 자신의 성장을 향하고, 또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쏟게 된다.”라고 했다(김선희, 2000, 재인용).

From(1955)은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적’이란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고 실현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Rogers(1961)는 인간의 본질은 적극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

적이고, 현실적이며, 자아실현 지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매우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체가 개방적으로, 실존적으로, 신뢰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인간이 갖는 최상의 동기가 자아실현의 동기라고 확신한다(윤여경, 1996, 재인용). 또한 Rogers(1962)는 완전히 성공적인 교육에서와 심리치료로부터 형성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경험의 개방성이 증가되며, 실존적인 삶(existential living)을 살 뿐 만 아니라, 유기체적 신뢰성(organismic trusting)을 지니고 있고 경험적 자유(experimantal freedom)를 누린다.”고 보았다(윤여경, 1996, 재인용).

Rogers(1963)는 이상적인 인간은 현실적, 주체적, 적극적, 사회적, 창조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억압하고 있는 경험을 모두 의식하고 수용하며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비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판단을 하며 자립적으로 행동하면서 불안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의욕을 나타낸다. 더불어 타인과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문제에 독자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을 의미한다(윤여경, 1996, 재인용).

Maslow는 자아실현인의 특징을 다음 같이 논하고 있다. (1) 효율적으로 현실을 지각하고 (2) 타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3) 자발적이고 솔직하며 (4)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문제 중심적이고 (5) 초월적이며 사적인 생활과 독립욕구가 강하고 (6) 자율적 기능이 있으며 (7) 계속적으로 감정의 신선함이 있고 (8) 신비로움이나 절정감을 경험하고 (9) 사회적 관심이 있으며 (10) 더 깊은 대인관계를 맺고 (11) 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12) 선과 악을 구별하고 (13) 적개심이 없는 유머 감각과 (14) 창조성을 지니고 (15) 사회적 강압에 잘 적응한다(최승희, 1990, 재인용).

매슬로우(Maslow)는 로저스(Rogers)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아실현을 생각했으나 그는 기본적인 성장경향뿐만 아니라 유기체의 생리적 경향이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자아실현성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선희, 2000, 재인용).

From(1977)은 자아실현인을 생산지향적인 사람으로 보며, 인간의 5가지 심리욕구 즉, 관계성, 초월성, 정착성, 정체의식, 지향체제 등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만족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1) 이들은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2) 이들은 사랑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며, 주체성이 있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격리와 소외를 극복한다(김영순, 1992, 재인용).

Perls(1969)는 자아실현인을 present moment of existence(현실적 실존)에 바탕을 둔 “여기 지금의 사람”이라고 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의 능력을 인식하고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깨닫는다.

2) 자기의 충동과 욕망을 개방적으로 표현한다.

3)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4) 주위세계와 완전한 접촉을 하는 반면, 외부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개념으로 지시 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김영순, 1992, 재인용).

김성태(1975)는 “성숙 인격론”에서 자아실현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고 주체감을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성취를 충분히 완수한다.

둘째, 자기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현실에서의 자기를 객관화시키며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셋째, 사랑과 이해, 수용적 태도로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확고하고도 타당한 인생목표를 지니고 살며, 통일된 세계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다섯째, 문제를 직접 현실 속에서 해결하는데 만족을 느끼며,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문제 중심적이다(조희숙, 198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자는 자아실현인이란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특성을 잘 개발하여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지대한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2. 유아의 자아능력지각

유아는 약 2세 경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약 2세 경이 되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자라난다. 자신에 대한 개념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분명해진다(최영희, 1997).

자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자아개념이나 자존감등의 자아의 평가적 차원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전경숙, 1993; 박상미, 1999).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존중(Self-esteem), 자아상(Self-image)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지각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해석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이주리, 1994; 진영희, 2001).

자기능력지각이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확신의 지각을 말하며(전경숙, 1992), 긍정적 자아개념과 유사하다.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대인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영희, 1997). 한편, 박상미(1999)는 자아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지각으로 보았다.

Harter는 자기능력지각을 아동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 개념이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보다 분화된 개념으로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인지요소임을 시사하였다(최영희, 1997). 또한 Harter의 자아능력지각이란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자아지각, 자기지각, 자기역량지각 또는 자기능력지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강민주, 전경숙, 1995; 김순혜, 2001; 김연하, 조복희, 1997; 박상미, 1999; 박성욱, 2005; 성영혜, 신귀순, 2001; 소수연, 1995; 송순, 송희옥, 2001, 안지송, 2004; 이영, 박상미, 1995; 이영환, 백지은, 1997; 이영환, 1997; 전경숙, 1994; 진영희, 2001; 최영희, 1997).

자아지각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지각으로 볼 수 있다(박상미, 1999).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 정도에 대한 생각과 느낌으로 또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지각이 형성된다. 자아지각은 이후의 성취동기, 대인관계, 정서적 성숙, 학업 성취, 중요한 생활 경험 등의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역량과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인성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역량이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훌륭한 발달적 과정을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또래, 기타 관계를 맺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김연하, 조복희, 1997; 송순, 송희옥, 2003).

가정환경은 아동의 능력발달과 자아능력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이주리, 1994),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능력지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박성욱, 2005). 어머니의 지지와 수용이 아동의 자아지각에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이영환, 백지은, 1997),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은 유아의 자아능력지각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안지송, 2004).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이 되는 자아능력에 대한 지각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해석으로, 유아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타인의 행동이나 평가는 유아 자신의 행동이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성취요인이 된다. 또한 유아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자신의 사회적응, 행동양식, 목표달성 등을 결정하게 된다(진영희, 2001).

자아능력을 높게 지각한 유아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가 쉽다. 반면 자아능력을 낮게 지각한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며 좌절했을 때에도 자아능력을 높게 지각한 유아보다 덜 동기화 된다.

최영희(1997)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정도는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비 통제적이며, 교육수준이 높을 때 자녀가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진화(1993)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하였다. 전경숙(1996)에 의하면,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하는 어머니의 긍정적 신념이 높음에 따라 아동이 자기능력을 지각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미(1999)는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 측면인 애착의 질이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과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자아가치에 관한 자아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보다

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동의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성영혜와 신귀순(2001)의 연구에서 가족의 기능이 원활할수록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성향에서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은정(2000)도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이 아동의 역량지각과 교우관계와의 관계에서 보면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원활할수록 아동의 역량지각 및 교우관계의 질이 높았다.

Bradley와 Caldwell은 아동의 가정환경과 인지적 역량, 지능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가정환경 변수 중 적절한 놀이자료의 제공, 환경의 조직,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 정도와 반응은 아동의 인지역량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했다(성영혜, 신귀순, 2001, 재인용). 또한 아동은 가족과의 초기경험, 즉 역량 있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정 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습득을 통해서 사회역량에 필요한 사회인지기술을 습득한다(이은정, 2000).

한종혜(199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과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주리(1996)는 유아의 모자간의 애착과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영환과 백지은(1997)은 어머니의 애정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아동의 학업적 역량, 사회적 수용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였다고 하였다.

진영희(2001)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인지능력 지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능력지각이 높아질 수 있고, 어머니의 역할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유아가 낮은 집단의 유아보다 자아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아는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발달하게 되는데, 유아의 자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박상미, 1999). 그러므로 자아능력에 대한 지각은 유아의 최초의 상호작용의 근원인 가정, 특히 어머니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에서부터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능력 지각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확신의 지각으로 보고 자아능력지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인지능력 지각은 유아수준에 맞는 지식, 의식, 지능, 사고, 상상력, 계획의 산출, 추리, 추론, 문제해결, 개념화, 분류와 관계 짓기 등을 하는 지적능력을 의미한다.

사회능력 지각은 자신과 타인 및 이들의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자극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말한다.

신체능력 지각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유아교육사전, 1997).

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유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어머니는 유아와 가장 많은 접촉을 통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자기 인식 형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찍이 Cooley(1902), Mead(1934) 등은 자아의 발달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영, 박상미, 2000, 재인용).

정원식(1970)은 인생초기의 몇 년간은 유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며, 부모는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최초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김재은(1996)은 인간의 성격 형성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지는데 어릴 때 경험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곳은 가정이라 하였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가정은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단위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발달은 달라진다. 자아의 발달과 자아능력 지각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지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곽용, 1986; 권순명, 1995; 김세나, 2003; 박미옥, 1994; 서신영, 2003; 원영희, 1991; 윤경화, 1992; 이계숙 2003; 한국유아교육학회, 1999; Turner & Harris, 1984).

유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박성옥, 2005; 이진화, 1993). 유아에 대한 발달과 적응에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강차연, 1995; 서영숙, 2000; 남재임, 2005). Belsky는 자녀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 중에 유아의 특성이나 부모가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했으며, Grossman 등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심리적 특성이라고 지적했다(진영희, 2001, 재인용).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실현성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정숙(1983)에 의하면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적고 적극적인 가정관리를 수행하며, 비교적 자신의 능력에 따른 성취동기도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기연(1988)은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

계를 연구한바 있는데, 주부의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부인의 참여와 부부공동참여가 증가함을 보여주었고, 특히 주부의 자아실현성은 부부공동참여와 상관성이 높았다. 즉,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편과 타협적이고 공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실현성과 공동참여는 학력과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취업 유무가 자아실현성 및 부인의 참여 그리고 부부공동참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진영(2003)은 어머니의 취업이 자아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는 있으나 자아실현의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아실현의 영역이 학문적, 예술적, 가정·사회적 공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희(1989)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은 상황변수와 자아실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족생활주기가 학령 전 유아기이거나 자녀가 독립기일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정 내의 의사 결정 시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순(1992)은 주부들의 부부역할 태도 및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아실현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실현정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반면 진보적 태도 유형 집단은 보수적 태도 유형 집단보다 자아실현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더라도 진보적인 역할태도를 가진 주부가 자아실현정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

은영(1995)은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변인과 여가활동 참여도 및 자아실현성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가정지향활동, 소일활동, 종교·사회 참여활동, 자기개발의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주부의 자아실현성의 정도는 주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건강한 주부일수록 자아실현성이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양경화(1999)는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버지-자녀관계, 부모의 성격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성격과 자아실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혜선(1993)은 어머니의 자아실현점수가 높을수록 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홍진영(200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임(2005)의 의하면,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Maslow는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독창성, 창조성을 갖는다고 하였다(남재임, 2005, 재인용).

특히, 어머니는 주위의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유아의 행동에 최초의 모델이 되며, 가장 빈번한 접촉과 많은 시간 동안 긴밀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초기의 자아개념 형성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다(서영숙, 2000). 따라서 유아기 자녀는 어머니라는 모델을 통해 자신의 모든 행동과 인격의 바탕이 되는 자아개념을 형성하면서 자아지각을

형성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어머니 자신의 삶의 뜻과 의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7곳의 만 5세 남·여 유아 및 그들의 어머니 각각 315명을 대상으로 자아능력 지각검사와 자아실현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Ⅲ-1>, <표 Ⅲ-2>와 같다.

<표 Ⅲ-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315

변인	구분	빈도(%)
거주 지역	제주시	266(84.44)
	서귀포시	47(14.92)
	기타	2 (0.63)
연령	25세 이하	0(0.00)
	26세~30세	7(2.22)
	31세~35세	99(31.43)
	36세~40세	148(46.98)
	41세~45세	52(16.51)
	46세 이상	9(2.86)

N=315

변인	구분	빈도(%)
교육정도(학력)	무학	0(0.00)
	초등학교 졸업	1(0.32)
	중학교 졸업	6(1.90)
	고등학교 졸업	116(36.83)
	대학교 졸업	186(59.05)
	대학원 이상	6(1.9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7.62)
	100~200만원 미만	86(27.30)
	200~300만원 미만	105(33.33)
	300~400만원 미만	71(22.54)
	400만원 이상	29(9.21)
직업유무	유	189(60.00)
	무	126(40.00)
종교유무	유	170(53.97)
	무	145(46.03)

첫째,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6세~40세(46.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1세~35세(31.43%), 41세~45세(16.51%)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59.05%)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36.83%)이 다음 많이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33.33%)으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27.30%), 300~400만원 미만(22.5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어머니(60.00)%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40.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어머니(53.97%)가 종교가 없는 어머니(46.0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47.30%, 여아가 52.70%로 나타났다.

<표 III-2> 유아의 성별 및 인원수

N=315

변인	구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149(47.30)
	여아	166(52.70)

2. 연구절차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본 검사는 본 연구자가 2005년 9월 1일 - 9월 10일 사이에 7개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의 담임교사를 통해서 유아로 하여금 가정으로 어머니용 설문지 46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어머니용 설문지는 330(71.74%)부였고, 유아들은 설문지를 제출한 어머니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자아능력 지각검사를 실시했다. 즉, 유아 및 어머니용 쌍(pair)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330(71.74%)부였으며, 그 중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누락시켜 총 315(95.45%)부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검사는 예비검사와 본 검사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예비검사 및 검사자 훈련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검사에 대해 검사자 훈련과 연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자 예비검사를 하였다.

예비검사의 대상은 제주도 D유치원의 연구대상이 아닌 10명의 유아

를 선정하였다. 예비검사의 내용은 본 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 연구자에 의하여 9월 1주에 실시했다.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시기에 맞추어 본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검사 소요시간은 5-15분 정도였고, 조사순서는 인지능력지각, 사회능력지각, 신체능력지각 순으로 하였다. 본 검사는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담임교사 13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검사 실시하기 전에 대상 유아 담임교사와 면담을 가진 후, 연구목적 및 검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2) 본 검사

유아들의 자아능력지각 본 검사는 2005년 9월 12일 - 9월 30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본 검사는 어머니용 자아실현성 설문지를 제출한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질문을 통한 집단 및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유치원에서 본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검사실에서 실시했다. 유아들이 검사실에 들어오기 전에 유아 10인정도 집단 면접으로 유아가 검사실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 주었다. 1인 유아가 검사실에 들어오면 남아는 남아용 그림도구를, 여아는 여아용 그림도구에 이름을 기록한 후, 그림도구를 설명하기 전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특히 유아들이 심적으로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 검사는 그림도구에는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글자가 있는데 연구자가 대상 유아에게 글자를 읽어준 후 그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고, 그림도구에 대하여 유아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다시 설명하여 주었다.

3. 측정도구

1) 자아실현성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O.I(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검사 척도를 사용했다. 이것은 1963년 미국의 The Institute of Therapeutic Psychology의 소장이며, 미국 국제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인 E. L. Shostorm이 처음 제작한 것으로 김재은과 이광자(1977)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Maslow의 자아실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의 일종으로서 병리적인 특성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인본주의, 실존주의, 형태심리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자아실현성의 도구는 두 개씩 짝 지워진 130개의 문항이 서로 대조되는 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가 두 개의 글 중에서 자신의 가치기준과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주요척도로는 시간성 척도(TC)와 지향성 척도(I)가 사용되고, 지향성 척도는 다시 요인별로 분류되어 8개의 하위영역, 자아실현성(SAV), 실존성(EX), 감수성(FR), 자발성(S), 자기긍정성(SR), 자기수용성(SA), 인간관(NC), 포용성(C)으로 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시간성 척도(Time Ratio: Time Incompetence/ Competence)는 시간효율성(TC: time-competence) 대 시간비효율성(TI: time-incompetence)을 평가한 척도로, 개인이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 중심으로 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설기문 역, 1988).

지향성 척도(Support Ratio : Other/Inner)는 내부 지향성(I: inner-directed)

과 외부지향성(O: other-directed)을 측정하는 척도로, 개인의 행동양식이 내부지향적인지 외부 지향적인지를 측정하며 상대적 자율성 정도를 보여 준다.

지향성 척도의 하위영역인 자아실현성(Self Actualizing Value)은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실존성(Existentiality)은 원리원칙에 얽매임 없이 상황에 맞게, 또는 실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감수성(Feeling Reactivity)은 자기의 욕구와 느낌에 대한 감수성 또는 반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자발성(Spontaneity)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또는 기꺼이 본래의 자기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측정한다.

자기긍정성(Self Regard)은 자기의 가치나 장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자기수용성(Self Acceptance)은 자기의 약점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인간관(Nature of man, Constructive)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포용성(Capacity for Intimate)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대와 의무감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표Ⅲ-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측정 문항 분류

측정요인	문항수	문항분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a<1점>	b<1점>	
시간성(TC/TI)	23	89 91 98 113 120 122 124	1 51 72 76 77 79 92 95 96 97 105 106 109 116 123 125	.88
지향성(O/I)	107	3 5 13 14 17 18 21 25 26 27 29 31 33 34 37 40 46 49 54 57 59 63 64 65 66 68 69 81 83 86 87 88 90 99 102 103 104 107 108 111 112 114 115 117 118 121 126 127 129	1 2 4 6 7 8 9 10 11 12 15 16 19 20 22 23 24 28 30 32 35 36 38 39 42 43 44 45 47 48 50 52 53 55 56 58 60 61 62 67 70 71 73 74 75 78 80 82 84 85 93 94 100 101 110 119 128 130	.93
자아실현성(SAV)	22	5 21 32 37 59 86 87 90 99 103 104 108 113 115 118 121 126 127	8 15 30 78	.85
실존성(EX)	23	13 14 25 49 65 129	1 2 4 7 16 30 38 47 55 58 78 84 96 105 110 123 128	.85
감수성(FR)	21	3 12 27 32 40 46 81 83 88 111	8 11 45 48 50 53 60 67 80 82 101	.84
자발성(S)	16	5 21 29 59 65 88 104 117 118	1 35 45 47 71 74 75	.86
자기긍정성(SR)	15	25 26 32 33 34 59 69 103 108 112 129	6 12 41 52	.87
자기수용성(SA)	25	17 18 31 54 57 63 68 114	2 4 9 10 20 22 23 35 36 41 43 56 61 62 76 108 130	.83
인간관(NC)	10	34 37 64 69 121 127	30 73 100 119	.85
포용성(C)	22	14 27 46 90 107	1 16 19 30 38 42 45 47 48 52 53 58 61 67 71 93 101	.84

측정방법은 각각의 문항에서 자아실현성을 나타내는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점수를 합산하였다.

2) 자아능력

유아의 자아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역량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for children)’를 이주리(1994)가 번안·수정한 것을 보완 사용하였다. 유아 자신의 능력을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에 대한 지각이 세 개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며, 각 영역 당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정말 똑같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정말 똑같다)이다.

검사 도구는 36장(18쌍)의 그림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에게 그림을 보여준 후 긍정적인 응답인 경우 ‘정말 똑같다’를 4점, ‘약간 그렇다’를 3점, 부정적인 응답인 경우 ‘약간 그렇지 않다’를 2점, ‘정말 똑같다’를 1점으로 평가하여 여기서 얻어진 점수는 긍정적 자아능력의 정도를 뜻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함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도구는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남아용, 여아용으로 따로 제작하였다.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검사의 하위 영역별 구성요인은 <표 III-4> <표 III-5>와 같다.

<표 III-4> 자아능력 지각검사의 하위 영역별 구성 요인

영역별 능력	하위영역	그림 상황	문항번호
인지 능력	언어	· 책을 보고 잘 아는 그림(혼자 책을 잘 읽는 그림)	2
	수리	· 숫자를 공부하는 그림	3
	학습관련능력	· 선생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그림	1
		·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림	4
		·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림	5
		· 배운 것을 기억하는 그림	6

영역별 능력	하위영역	그림 상황	문항번호
사회 능력	사회관계	· 같이 놀 친구가 많은 그림	7
		· 함께 놀자고 청하는 친구가 많은 그림	8
	사회행동	·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돌보아 주는 그림	9
		· 먼저 놀고 있는 친구집단에게 같이 놀자고 끼어드는 그림	10
		·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그림	11
		·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림	12
신체 능력	신체발달	· 달리기하는 그림	13
		· 철봉 정글 오르는 그림	14
	운동게임	· 장애물을 뛰어 넘는 그림	15
		· 공을 치는 그림	16
		· 실외게임보다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림	17
		· 실외게임 하는 그림	18

<표 III-5>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측정 문항 분류

측정요인	문항수(18)	문항분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인지능력	6	1 2 3 4 5 6	.68
사회능력	6	7 8 9 10 11 12	.71
신체능력	6	13 14 15 16 17 18	.71

4. 자료의 처리

연구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하위요인의 상·하 집단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실현성의 하위요인을 각 영역 33% 수준에서 각 105명씩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중간집단을 제외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 사회능력지각, 신체능력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하위요인(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하위요인(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IV-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
시간성	.150**	.129*	.173***
지향성	.153**	.138**	.171***
자아실현성	.154**	.148**	.169***
실존성	.101*	.084	.137**
감수성	.184***	.168***	.182***
자발성	.146**	.129*	.170***
자기긍정성	.134**	.121*	.157**
자기수용성	.135**	.117*	.167**
인간관	.154**	.150**	.192***
포용성	.137**	.118*	.153**

*p<.05, **p<.01, ***p<.001

어머니 자아실현성 하위요인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 하위요

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실존성과 유아의 사회능력지각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시간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0, p<.01$), 사회능력지각($r=.129, p<.05$), 신체능력지각($r=.17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시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지향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3, p<.01$), 사회능력지각($r=.138, p<.01$), 신체능력지각($r=.17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지향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4, p<.01$), 사회능력지각($r=.148, p<.01$), 신체능력지각($r=.16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아실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실존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01, p<.05$), 신체능력지각($r=.13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실존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신체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감수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84, p<.001$), 사회능력지각($r=.168, p<.001$), 신체능력지각($r=.18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감수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발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46, p<.01$), 사회능력지각($r=.129, p<.05$), 신체능력지각($r=.17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발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긍정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4, p<.01$),

사회능력지각($r=.121, p<.05$), 신체능력지각($r=.15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기긍정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수용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5, p<.01$), 사회능력지각($r=.117, p<.05$), 신체능력지각($r=.16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기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적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인간관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4, p<.01$), 사회능력지각($r=.150, p<.01$), 신체능력지각($r=.19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포용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7, p<.01$), 사회능력지각($r=.118, p<.05$), 신체능력지각($r=.15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1)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표 IV-2>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하위영역 \ 집단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19.91(3.35)	19.74(3.52)	.72
사회능력	19.98(3.69)	19.75(3.14)	.96
신체능력	19.58(3.72)	18.99(4.10)	2.28*

*p<.05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28$, $p<.05$), 시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시간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능력은 어머니의 시간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28$, $p<.05$). 이러한 결과로 시간을 현재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신체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2)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
능력지각의 차이

<표 IV-3>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하위영역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19.78(3.67)	19.26(3.45)	2.13*
사회능력	19.90(3.27)	19.78(3.47)	.50
신체능력	19.53(4.22)	18.94(3.50)	2.33*

*p<.05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지각과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13 : t=2.33, p<.05), 지향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지향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지각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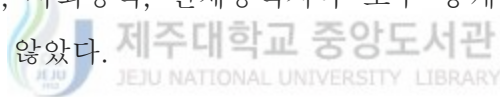
즉, 인지능력은 어머니의 지향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2.13, p<.05), 신체능력은 어머니의 지향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33, p<.05). 이러한 결과로 내부지향적인 어머니의 자녀가 외부지향적인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 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4>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상	하	t
하위영역	M(SD)	M(SD)	
인지능력	19.79(3.37)	19.37(3.58)	1.74
사회능력	20.10(3.18)	19.75(3.61)	1.47
신체능력	19.90(3.60)	19.52(4.16)	1.5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지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 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5>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상	하	t
하위영역	M(SD)	M(SD)	
인지능력	19.71(3.73)	19.26(3.39)	1.84
사회능력	19.90(3.45)	19.79(3.26)	.46
신체능력	19.42(4.13)	18.90(3.78)	2.00*

*p<.05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00, p<.05$), 실존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실존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능력은 어머니의 실존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00, p<.05$).

이러한 결과로 가치나 원리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5)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6>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하위영역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20.06(3.50)	19.66(3.38)	1.66
사회능력	20.08(3.30)	19.82(3.31)	1.11
신체능력	19.74(4.09)	19.30(3.65)	1.81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 지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
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7>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하위영역 \ 집단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19.61(3.70)	19.20(2.93)	1.73
사회능력	20.03(3.27)	19.76(3.41)	1.16
신체능력	19.63(4.10)	19.10(3.71)	2.07*

*p<.05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07$, $p<.05$), 자발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발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 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능력은 어머니의 자발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07$, $p<.05$). 이러한 결과로 감정표현이 자발적인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7)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8>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집단	상 M(SD)	하 M(SD)	t
하위영역			
인지능력	19.76(3.48)	19.04(3.60)	2.97**
사회능력	19.99(3.50)	19.29(3.30)	2.94**
신체능력	19.66(3.66)	18.94(4.25)	2.80**

**p<.01,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은 인지능력지각과 사회능력지각 및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97$: $t=2.94$: $t=2.80$, $p<.01$), 자기긍정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긍정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 사회, 신체자아능력 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인지능력은 어머니의 자기긍정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2.97$, $p<.05$), 사회능력은 어머니의 자기긍정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94$, $p<.05$). 또한 신체능력도 어머니의 자기긍정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80$, $p<.05$).

이러한 결과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8)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9>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하위영역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19.73(3.49)	19.06(3.61)	2.76**
사회능력	20.03(3.55)	19.66(3.36)	1.53
신체능력	19.28(4.09)	18.67(3.65)	2.41*

*p<.05, **p<.01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은 인지능력지각과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t=2.76, p<.01 : t=2.41, p<.05), 자기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수용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인지능력은 어머니의 자기수용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2.76, p<.05), 사회능력은 어머니의 자기수용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41, p<.05).

이러한 결과로 자기의 약점이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사회능력, 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9)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차이

<표 IV-10>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집단 하위영역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20.06(3.46)	19.69(3.59)	1.52
사회능력	20.14(3.34)	19.71(3.36)	1.80
신체능력	19.51(4.26)	18.93(3.59)	2.26*

*p<.05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26, p<.05),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간관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능력은 어머니의 인간관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26, p<.05). 이러한 결과로 인간을 선하게 보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10)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
능력 지각의 차이

<표 IV-11>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

하위영역 \ 집단	상 M(SD)	하 M(SD)	t
인지능력	19.67(3.79)	19.07(3.33)	2.48*
사회능력	20.03(3.53)	19.54(3.25)	2.04*
신체능력	19.46(4.22)	18.71(3.68)	2.93**

*p<.05, **p<.01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지각과 사회능력지각 및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48 : t=2.04 : t=2.93, p<.05), 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포용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자아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지능력은 어머니의 포용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t=2.48, p<.05), 사회능력은 어머니의 포용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04, p<.05). 또한 신체능력도 어머니의 포용성의 상·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2.93, p<.05).

이러한 결과로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수준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 관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주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7개 곳의 만 5세 남·여 유아 31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능력지각 검사와 자아실현성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측정도구로는 P.O.I(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검

사 척도를 사용했다. 이것은 1963년 미국 국제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인 E. L. Shostorm이 처음 제작한 것으로 김재은과 이광자(1977)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Harter(1982)의 ‘역량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for children)’를 이주리(1994)가 번안·수정한 것을 보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01$ 과 $p<.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어머니 자아실현성 하위요인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실존성과 유아의 사회능력지각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시간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0, p<.01$), 사회능력지각($r=.129, p<.05$), 신체능력지각($r=.17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시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지향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3, p<.01$), 사회능력지각($r=.138, p<.01$), 신체능력지각($r=.17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지향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4, p<.01$), 사회능력지각($r=.148, p<.01$), 신체능력지각($r=.16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아실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실존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01, p<.05$), 신체능력지각($r=.13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실존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신체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감수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84, p<.001$), 사회능력지각($r=.168, p<.001$), 신체능력지각($r=.18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감수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발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46, p<.01$), 사회능력지각($r=.129, p<.05$), 신체능력지각($r=.17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발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긍정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4, p<.01$), 사회능력지각($r=.121, p<.05$), 신체능력지각($r=.15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기긍정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수용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5, p<.01$), 사회능력지각($r=.117, p<.05$), 신체능력지각($r=.16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자기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인간관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54, p<.01$), 사회

능력지각($r=.150, p<.01$), 신체능력지각($r=.19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포용성은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지각($r=.137, p<.01$), 사회능력지각($r=.118, p<.05$), 신체능력지각($r=.15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즉 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 사회, 신체 능력에서 긍정적인 자아능력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기 위하여 자아실현성의 하위요인인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을 각 영역 33% 수준에서 각 105명씩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고, 중간집단을 제외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시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28, p<.05$), 시간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시간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향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지각과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13 : t=2.33, p<.05$), 지향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지향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지각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지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실존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00, p<.05$), 실존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실존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수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지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07, p<.05$), 자발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발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 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긍정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 사회능력 및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97 : t=2.94 : t=2.80, p<.01$), 자기긍정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긍정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 사회능력, 신체능력 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수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76, p<.01 : t=2.41, p<.05$), 자기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수용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간관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26, p<.05$),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인간관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포용성 상·하 집단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은

인지능력과 사회능력지각 및 신체능력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8$: $t=2.04$: $t=2.93$, $p<.05$), 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가 포용성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인지능력 사회능력 및 신체능력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아실현성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가 자아실현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보다 자아능력 지각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자아실현성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가 자신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능력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시간성, 실존성, 자발성, 인간관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는 신체능력지각이 더 긍정적이다. 즉, 현재를 중심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원리원칙에 얽매임 없이 상황에 맞게 실존적으로 반응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나 또는 기꺼이 본래의 자기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운동이나 실외놀이에 관해서 자신이 다른 유아보다 더 잘한다고 지각한다.

셋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지향성·자기 수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즉, 행동양식이 자신의 내면적인 원리나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내부지향적이며, 자신에게 약점이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언어, 수리, 학습에 관련된 능력, 운동이나 실외놀이에 관해서 자신이 다른 유아보다 더 잘한다고 지각한다.

넷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의 자기긍정성·포용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인지·사회·신체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즉, 자기의 가치나 장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대와 의무감 없이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언어, 수리, 학습에 관련된 능력,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 운동이나 실외놀이에 관해서 자신이 다른 유아보다 더 잘한다고 지각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형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아실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독려와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을 돕는 자아실현성 향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제언

첫째,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은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이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능력 지각 향상을 위해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들의 자아능력 지각검사를 할 때에는 각 유치원에서 특히 담임교사가 평소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유아들을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유아들의 응답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를 담당한 교사가 어떠한 교육관 및 교육적 태도로 유아를 지도할 때 유아의 자아능력지각이 보다 더 긍정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실현성 검사를 가정에서 하도록 하였는데 통제적인 상황에서 단체면접 형식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 및 성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즉, 아버지, 교사 등의 자아실현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주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알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아실현성에 대한 설문지 응답이 지역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여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에서 지역 간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여 보는 것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연(1988).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주, 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Vol.16 No.1, 197-210.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 용(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5). 지각된 양육경험이 자아 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인문 과학 연구소 논문집,**
22(2), 215-245.
- 김선희(2000). **집중적 참 만남의 적용가능성 탐색 및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나(2003). **부모의 양육행동과 배경 변인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하, 조복희(1997). 어머니의 부모 신념과 아동의 자기지각과의 관계.
생활과학 논집, 제1권 제1호, 77-89.
- 김운삼, 이상욱(2001).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진단논단, 제6호(2001, 2).** 천안대학교 대학원.
- 김응자(2004).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
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1992). **주부들의 부부역할 태도 및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이광자(1977).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혜경(2003). **타로를 활용한 집단 상담이 주부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임(2005).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자녀 기대감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원(2001).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 이영(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아동학회지**, Vol.21 No.1, 99-106.
- 박성옥(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4 No.2, 269-27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 이영환(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기지각의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4
- 서영숙(2000).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Vol.6, No, 24-63.
- 소수연(1995). **자기능력지각 유형과 내적귀인 피드백이 자아효능감과 읽기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화(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

-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문경(1988). 도시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의복의 개성-동조성 변인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 송희옥(200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2 No.4, 417-431. No.1, 91-110.
- 안지송(2004).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지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연(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199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유아교육학회(1997).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윤여경(1996). 여가활동 자아실현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화(1992).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숙(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78).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역할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1997). 아동의 자기-지각 연구에 있어서 척도의 문제점. **한국영 유아보육학**, Vol.11, 133-144.
- 이사라,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 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주리(1994). 아동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이정우(1984). 도시 주부의 자아실현성이 가정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숙(1984). **여성 역할태도와 자아실현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1989). **환경 변인과 자아실현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1996).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Vol.17 No.1, 57-74.
- 진영희(2001).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및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자아능력 지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1990).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 디자인 선호도간의 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1997).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회과학논총**, Vol.9 No, 303-316.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정(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92).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생활과학연구논집**, Vol.12 No.1.
- 한지윤(1996). **청년초기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실현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Vol.22 No.2,
- 홍진영(200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유아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선(1993).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옥경(1999). 아동의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7 No.3,
- Baruch, A. K.(1972). Maternal influences upon college women's attitudes toward woman and 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6, 32-37.
- Belsky, J.(1984). The determine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4, New york: John Wiley.
- Hary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Children. *Universiry of Denver*.
- Maslow, A. H.(1962). *Vicissitudes of creativity in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NY : Harper and Row Publisher.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Self Realization and her
Child's Self Capability Recognition**

Ko Min-ja

Consultative Psychology Major

Jeju University

Guiding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a mother's self-relationship on the self capability recognition of her child in babyhood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self-relationship on the self capability recognition of her child in babyhood. To this end, the questions were drawn up as follows.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self-relationship on the self capability recognition of her child in babyhood?
2. What is the child's self capability recognition depending on the mother's degree of self-realiz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the children under 5 from kindergartens located in the city of Jeju and Seoguipo and their mothers of 315. Among them 105 children of the mothers with high self realization and low self realization were selected respectively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self capability.

The test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a scale of capability

recognition on children and the test of self realization was used on the mothers.

Data processing was done using SPSS windows 10.0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 standard deviation to determ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elf realization and the children's self capability recognition was defined using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test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children's recognition capabilities depending on the high and low groups of mothers of self-realiz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self-relationship on the self capability recognition of her child in babyhood, mothers' self-realiz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children's self capability recognition in baby hood since it poses static influence except for mothers' real existence and children's social capability recognition.

2. The children of mothers with high timeliness, real existence, volunteering and human views have a positive physical capability recognition. In other words, children of the mothers who use time efficiently and pro-actively respond to situations and view human being as good are more positively recognize physical ability.

3. The children of the mothers with high orientation and self acceptance have positive physical ability to recognize. In other word, the higher the mothers' behavior is oriented internally and more opt ot accept themselves, the more positive their children

in terms of recognition and physical capability.

4. The higher the mothers' self positiveness and tolerance of self realization are, the more positive are their children's social and physical capability.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mothers' behavior is positive and maintains good relationship, the more positive their children in terms of social and physical capability.



부 록

<부록1> 자아실현성 검사지(어머니용).....60

<부록 2> 자아능력지각 검사지 (유아용).....72



<부록 1>

-자아실현성 검사지(어머니용)-

1. 자녀 이름 :
2. 자녀 성별 : 남, 여
3. 자녀 나이 : 만 세(출생년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검사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과 자아실현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아실현성 문항은 대조되는 가치를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오니 어머니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 중 어느 것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쪽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자녀의 자아능력지각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므로 **자녀의 이름을 필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긴 설문이지만 성심껏 표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응답은 저의 연구에 더도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9. .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연구자 고민자

- 자아실현성 검사지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곳에 솔직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 ①	서귀포 ②	기타 ③
---------	----------	---------

**기타-제주, 서귀포를 제외한 지역

2. 현재(2005년 9월 기준) 귀하의 연령은?

25세이하 ①	26~30세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 ⑤	46세 이상 ⑥
------------	-------------	-------------	-------------	------------	-------------

3. 귀하의 교육정도는 ?

무학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⑥
---------	-----------------	----------------	-----------------	----------------	----------------

4. 귀하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

100만원 미만 ①	100~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⑤
------------------	----------------------	----------------------	----------------------	------------------

5. 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	----------

6.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①	아니오 ②
--------	----------

*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공정한지 어떤지를 엄격히 따진다.
b.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공정한지 어떤지를 절대적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2. a. 나는 무슨 일에서나 참말만을 해야 할 것 같이 느낀다.
b. 나는 무슨 일에서나 참말만을 하지는 않는다.
3. a.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내 감정이 상할 때가 종종 있다.
b.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만 하면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4. a.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5. a. 보통 나는 무슨 일을 내 스스로 혼자서 한다.
b. 내가 무슨 결정을 지을 때 내 스스로 혼자서 하는 일이 드물다
6. a.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싶지 않다.
b.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두렵지 않다.
7. a. 나는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b. 나는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8. a. 나는 남들과 일치된 가치관을 갖고 산다.
b. 나는 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 결정된 가치관을 갖고 산다.
9. a.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나는 자책감을 느낀다.
b.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나는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0. a. 만일 나 자신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서 안 될 일 이 없다.
b. 나 자신을 믿더라도 어쩔 수 없는 애로가 많다.
11. a. 나는 내 자신의 관심사보다 남의 관심사를 더 중요시한다.
b. 나는 내 자신의 관심사보다 남의 관심사를 더 중요시하지 않는다.
12. a. 나는 남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간혹 당황할 때가 있다
b. 나는 남에게서 칭찬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13. a.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룰 수가 있다.
b.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14. a. 나는 어떤 보답 없이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b.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들로부터 어떤 보답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15. a. 내가 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b.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은 나 스스로 결정한 것들이다.
16. a. 나는 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
 b. 남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든 상과하지 않는다.
17. a. 나는 나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한다.
 b. 나는 나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18. a.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만 가끔 화를 낸다.
 b. 나는 거의 화를 내는 일이 없다.
19. a.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 좋아한다.
 b.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20. a. 나는 실수할까봐 두려워한다.
 b. 나는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21. a.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자신을 갖는다.
 b.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22. a. 내가 달성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나의보람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b. 내가 달성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나의 보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3. a.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한다.
 b.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24. a. 나의 도덕적 가치관은 대부분 남들의 생각과 느낌과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b. 나의 도덕적 가치관이 대부분 남들의 생각과 느낌과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25. a.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b.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26. a. 나는 인생의 기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b. 나는 인생의 기복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

27. a.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한다.
b.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있어서 내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28. a. 어린애들은 어른과 똑같은 권리나 특권을 갖고 이다.
b. 권리나 특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9. a.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주장을 솔직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
b.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주장을 솔직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피한다.
30. a.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b.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는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31. a. 나는 내가 배운 많은 도덕적 가치관을 포기한 것 같다.
b. 나는 내가 배운 많은 도덕적 가치관을 전부 간직하고 있다.
32. a.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간다.
b.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33. a. 나는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b. 나는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34. a. 나는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b. 나는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35. a. 나는 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추구해 온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한다.
b. 나는 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추구해 온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36. a. 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해서 번민하다.
b. 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고 번민하지 않는다.
37. a.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b.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38. a. 나는 남들에 대한 복종과 의무감에 얽매어 있다.
b. 나는 남들에 대한 복종과 의무감에 얽매어 있지 않다.
39. a. 나는 내가 생각한 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b. 나는 내가 생각한 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40. a.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경우가 가끔 있다.
b.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41. a. 나는 과거 행동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가끔 생각한다.
b. 나는 과거 행동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2. a.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좋아한다.
b.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좋아하지는 않는다.
43. a.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을 들으면 내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
b.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을 들어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는다.
44. a.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아는 것은 사람들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b.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아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5. a.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낼까봐 두렵다.
b.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46. a. 나의 근본적인 책임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b. 나의 근본적인 책임은 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47. a. 남들에게 좋은 이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8. a.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다.
b.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고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49. a. 나는 우정이 깨질 것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한다.
b. 나는 옳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우정이 깨지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
50. a.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행은 꼭 피해야만 한다.
b. 불행을 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다.
51. a.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항상 예측해 보려고 애쓴다.
b.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항상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2. a. 남들이 내 견해를 받아들여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 b. 남들이 내 견해를 받아들일지나 않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3. a. 친구에게는 단지 호의만을 표시할 뿐이다.
b. 친구에게는 호의는 물론 적의도 거리낌 없이 표시한다.
54. a. 나는 나에게 대한 비판도 자기 성숙의 기회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b. 나는 나에게 대한 비판도 자기 성숙의 기회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5. a. 외모란 극히 중요한 것이다.
b. 나는 어쩌다가 남의 험담을 하는 수가 있다.
56. a. 나는 거의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b. 나는 어쩌다가 남의 험담을 하는 수가 있다.
57. a.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b.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 약점이 드러나면 마음에 걸린다.
58. a.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59. a. 나는 나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b. 나는 나 자신이 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
60. a. 나는 내가 느끼는 바가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b. 인생을 살아 나감에 따라 내가 느끼는 바가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고 있다.
61. a.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드러내길 주저한다.
b.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62. a.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목표만을 바라봄으로써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b. 나는 내 자신 그대로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잘 성장해 나갈 것이다.
63. a. 나는 나 자신에게도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인다.
b. 나는 나 자신에게도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64. a. 인간이란 본래 협동적인 동물이다.
b. 인간이란 본래 적대적인 동물이다.

65. a. 이따금 지저분한 농담을 듣고 거리낌 없이 웃는다.
b. 이따금 지저분한 농담을 듣고 결코 웃지 않는다.
66. a. 행복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산물이다.
b. 행복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이다.
67. a.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호의만을 보여준다.
b.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호의와 함께 모두 솔직하게 보이기도 한다.
68. a. 나는 진실 된 사람이 되고자 하나 가끔 그렇게 안 된다.
b. 나는 진실 된 사람이 되고자 하며 또 나는 진실하다.
69. a. 사리사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b. 사리사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70. a.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행복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b.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아서 행복한 관계를 짐작할 수 없다.
71. a. 두 사람이 가장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은 그들 각자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전력을 다하는데 있다.
b. 두 사람이 가장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있다.
72. a. 나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분개하는 일이 있다.
b. 나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분개하는 일이 없다.
73. a. 나는 남자다운 남성과 여자다운 여성만을 좋아한다.
b. 나는 남자다운 성격과 여자다운 성격을 함께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
74. a.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적극 노력한다.
b.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
75. a. 나는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대하여 나의 부모를 원망한다.
b. 나는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대하여 나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76. a.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하여 항상 후회해야 한다.
b.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하여 항상 후회 할 필요가 없다.
77. a. 나는 나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한다.
b. 나는 나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78. a. 친절과 무자비함은 공존할 수가 없다.
b. 친절과 무자비함은 공존한다.
79. a. 나는 좋은 물건들은 나중에 쓰려고 아껴주기를 좋아한다.

- b. 나는 좋은 물건부터 쓰기를 좋아한다.
- 80. a.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b.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 81. a. 말하고 난 후 결과가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의견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b. 말하고 난 후 결과가 잘못 될 것 같으면 의견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다.
- 82. a. 나는 가끔 내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b. 나는 가끔 내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 83. a. 나는 전에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b. 나는 전에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한 적이 결코 없다.
- 84. a. 나는 정통적인 종교인이다.
b. 나는 정통적인 종교인이 아니다.
- 85. a. 나는 별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b.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
- 86. a. 나는 혼자서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
b. 나는 혼자서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 87. a.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한다고 느낀다.
b.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 88. a. 나는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한다.
b. 나는 이익이 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 89. a.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한 순간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b. 단지 한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 90. a.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더 좋다.
b. 남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좋다.
- 91. a.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다.
b.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항상 좋다.
- 92. a. 나는 인생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b. 나는 실제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 93. a. 나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b. 나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94. a. 사람들 중에는 그들 나름대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b. 사람들 중에는 그들 나름대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없다.
95. a.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이다.
b.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이 현재를 위해 사는 것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된다.
96. a.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나는 신봉하고 있다.
b.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에 나는 구속받지 않는다.
97. a.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곧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암시해 준다.
b.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곧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암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98. a. 내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b. 내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99. a. 나는 인생이 아주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b. 나는 인생이 아주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경험을 한 적이 없다.
100. a. 사람은 타고난 성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b. 사람은 타고난 성질을 결코 바꿀 수 없다.
101. a. 나는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두렵다.
b. 나는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두렵지 않다.
102. a. 남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남들과 같이 나 자신을 본다.
b. 남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남들과 같이 나 자신을 보지 않는다.
103. a.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b.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짓이다.
104. a.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b.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105. a. 나는 언제나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 나는 언제나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06. a. 과거의 추억 때문에 괴롭다.
b. 과거의 추억 때문에 괴롭지 않다.

107. a. 격렬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b. 격렬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108. a. 나는 자신감에 차 있다.
b. 나는 자신감이 없다.
109. a.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한다.
110. a. 나는 항상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
b. 나는 이따금 속임수도 쓴다.
111. a. 나는 가끔 몹시 화가 나서 무엇이고 때려 부수고 싶을 때가 있다.
b. 화가 난다고 해서 무엇이고 때려 부수고 싶을 때는 없다.
112. a.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확신과 안정감을 느낀다.
b.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 확신과 불안정을 느낀다.
113. a. 나는 사람들에게서 잠시 물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b. 나는 사람들에게서 잠시 물러나 혼자 있고 싶지 않다.
114. a. 나는 나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b. 나는 나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
115. a. 나는 어리석고 시시껄렁한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다.
b. 나는 어리석고 시시껄렁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116. a. 나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b. 나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117. a.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
b.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18. a. 나는 일종의 황홀감이나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을 가져 본 일이 있다.
b. 나는 일종의 황홀감이나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을 가져 본 일이 없다.
119. a.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하다.
b.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하지 않다.
120. a. 나에게는 미래가 대체로 희망적일 것으로 보인다.
b. 나에게는 미래가 가끔 절망적일 것으로 보인다.
121. a. 사람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의 두 면을 다 갖고 있다.

- b. 사람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의 두 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22. a. 나의 과거란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다.
b. 나의 과거란 미래에 대한 장애이다.
- 123. a.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에게서 문제 거리이다.
b.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124. a. 나에게 있어서 과거나 현재, 미래는 서로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
b. 나에게 있어서 현재는 과거나 미래에서 동떨어져 있고 서로 관계가 없다.
- 125. a. 나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친구를 갖게 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b. 친구가 있다고 해서 장래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 126. a. 나는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지 않고도 그들을 좋아할 수 있다.
b. 나는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지 않는 한 그들을 좋아할 수 없다.
- 127. a.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b.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 128. a.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수단이다.
b. 정직이 최선의 수단이 아닐 때도 있다.
- 129. a. 나는 완전무결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도리어 편안함을 느낀다.
b. 나는 완전무결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 130. a. 나 자신을 믿는 한 어떤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b. 나 자신을 믿더라도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

-자아능력지각 검사지 (유아용)-

1.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읽으면 잘 알아진다.	2. 나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한다.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못한다.
4. 나는 아는 것이 많다.	4. 나는 아는 것이 적다.
5. 나는 내 친구보다 똑똑한 것 같다.	5. 나는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잊는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적은 편이다.
8. 많은 아이들이 날 좋아한다.	8. 날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
9. 나보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도와주게 된다.	9. 나보다 어린아이라도 제 힘으로 하도록 못 본 체 한다.
10. 나는 먼저 놓고 있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10. 친구들이 안 끼워주면 같이 놀게 되지 않는다.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쉽게 말을 건다.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한다.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한다.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한다.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 못 한다.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한다.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 못한다.
16. 나는 공놀이를 잘 한다.	16. 나는 공놀이를 잘 못한다.
17. 나는 운동경기를 할 때 구경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7. 나는 운동경기를 할 때 같이 하는 것 보다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8. 나는 운동경기를 곧 잘 한다.	18. 나는 운동경기를 잘 못한다.

♣ 그림도구(남아용)

😊 그림을 잘 보고 나를 닮거나 비슷한 동그라미에
표시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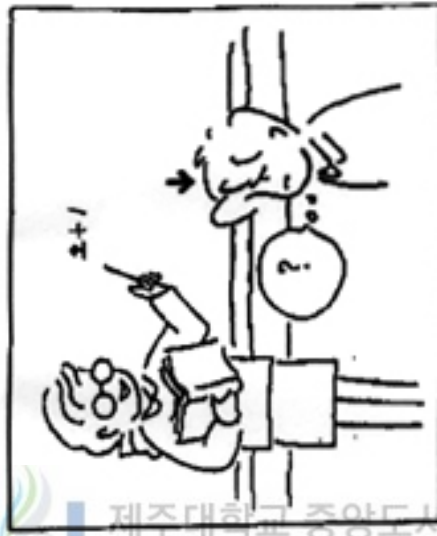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유치원 () 반 이름 ()

그림도구(남 아 용)

1.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
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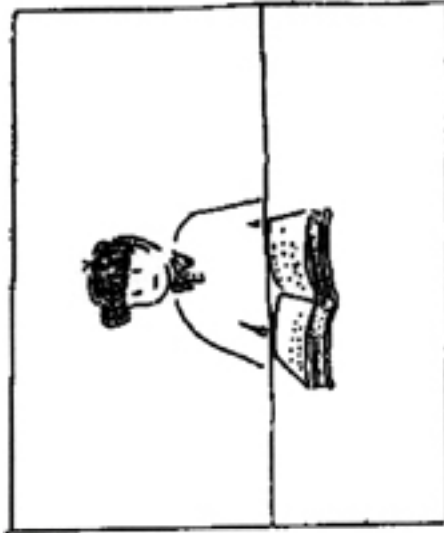
1.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2.나는 읽으면 잘 알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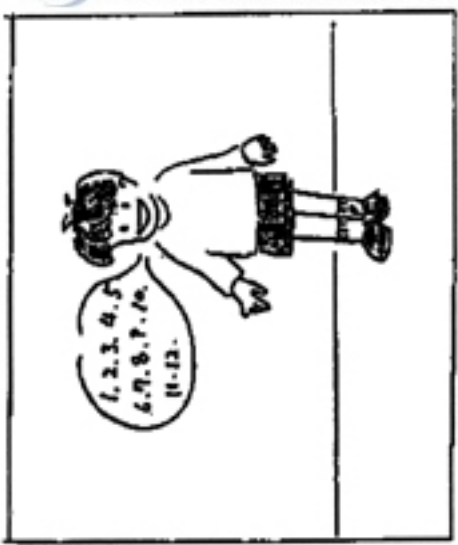
2.나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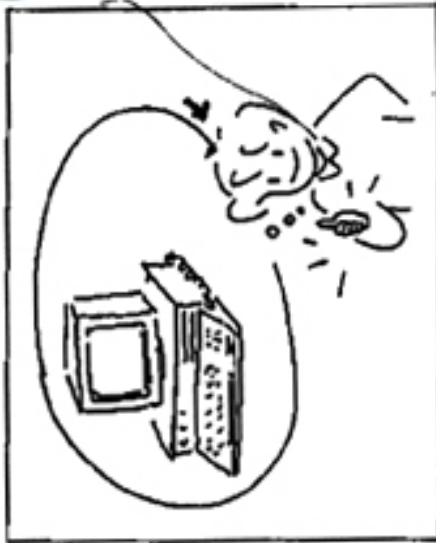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못한다.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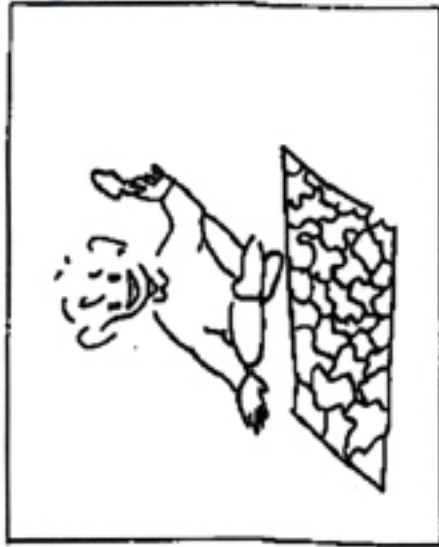
4. 나는 아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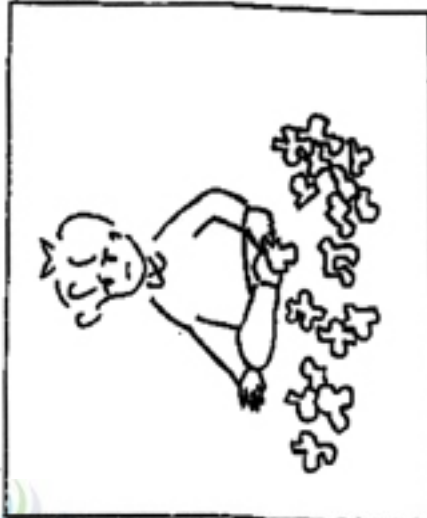
4. 나는 아는 것이 적다.



5. 나는 내 친구보다 똑똑한
것 같다.



5. 나는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잊는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적은 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8. 많은 아이들이 날 좋아한다.



8. 날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



9. 나보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도와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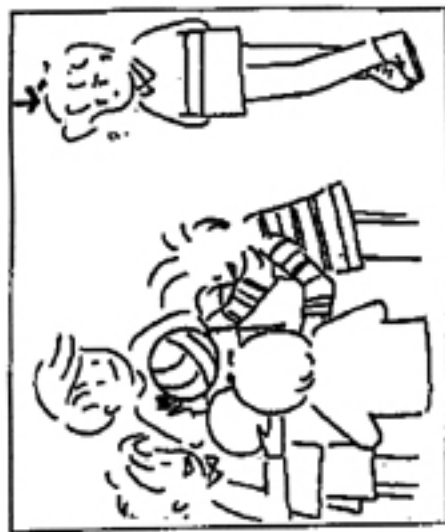
9. 나보다 어린아이라도 제 힘으로 하도록 못하게 한다.



10. 나는 먼저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논다.



10. 친구들이 안 끼워주면 같이 놀게 되지 않는다.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쉽게 말을 건다.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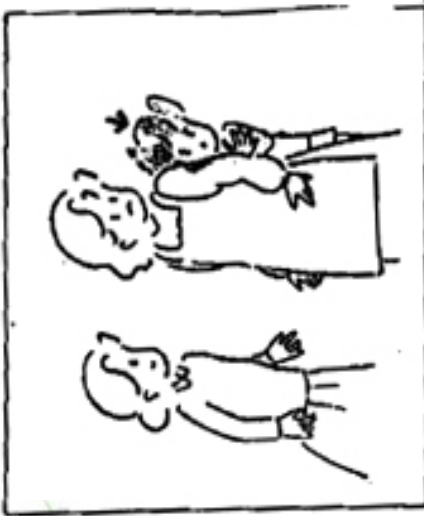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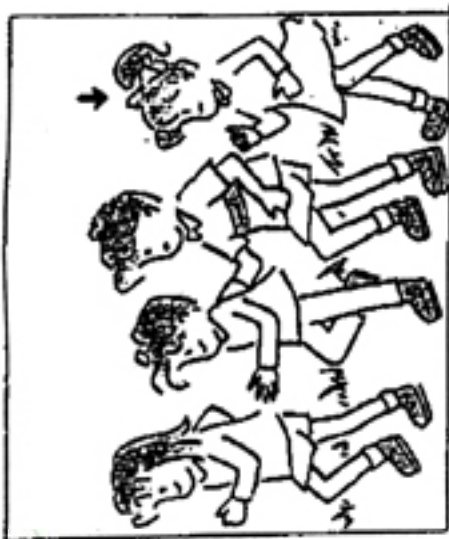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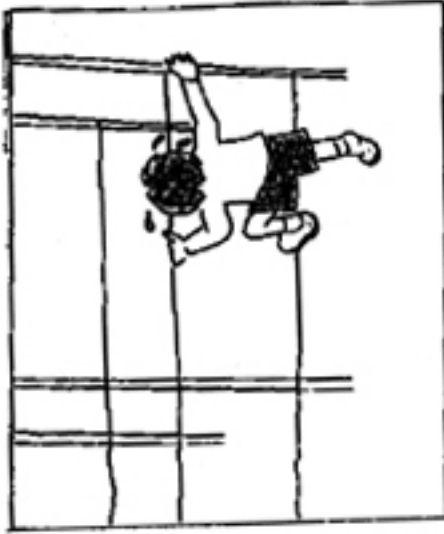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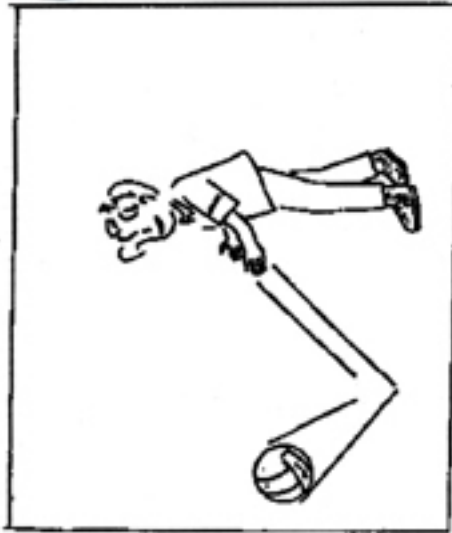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한다.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 못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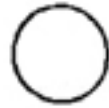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한다.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 못한다.



16. 나는 공놀이를 잘 한다.



16. 나는 공놀이를 잘 못한다.



17. 나는 운동경기를 할 때 구경하는 17. 나는 운동경기를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것 보다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8. 나는 운동경기를 곧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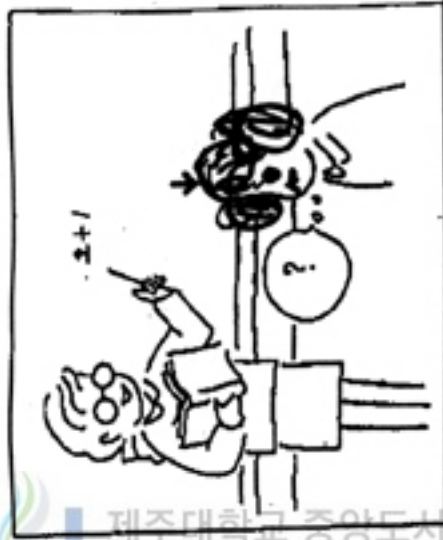


18. 나는 운동경기를 잘 못한다.



그림 도구(여아용)

1.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
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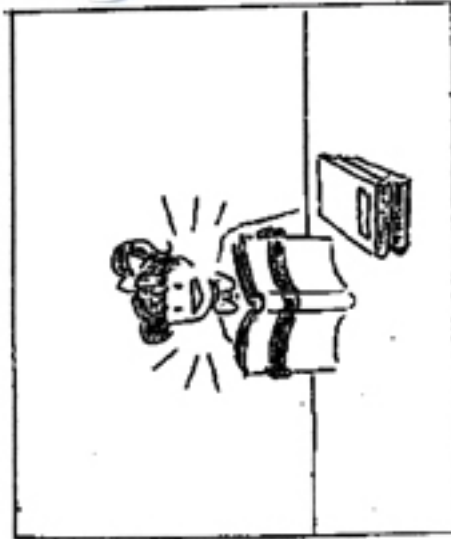


그림 도구(여 아 용)

2.나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2.나는 읽으면 잘 알아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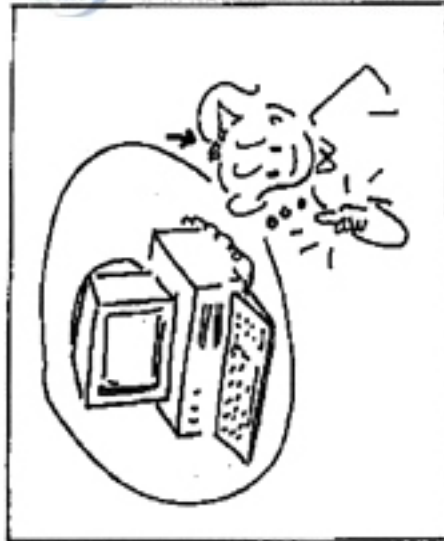
3. 나는 산수 공부를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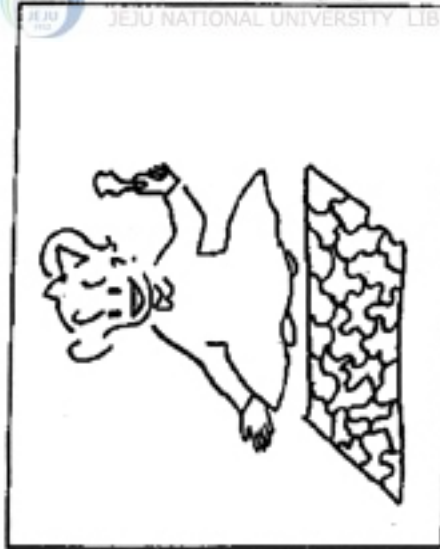
4. 나는 아는 것이 적다.



4. 나는 아는 것이 많다.



5. 나는 내 친구보다 똑똑한
것 같다.



5. 나는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6. 나는 배운 것을 잘 잊는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7. 나는 친구가 적은 편이다.



8. 많은 아이들이 날 좋아한다.



8. 날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



9. 나보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도와주게 된다.



9. 나보다 어린아이라도 제 힘으로 하도록 못 본 채 한다.



10. 나는 먼저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논다.



10. 친구들이 안 끼워주면 같이 놀게 되지 않는다.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쉽게 말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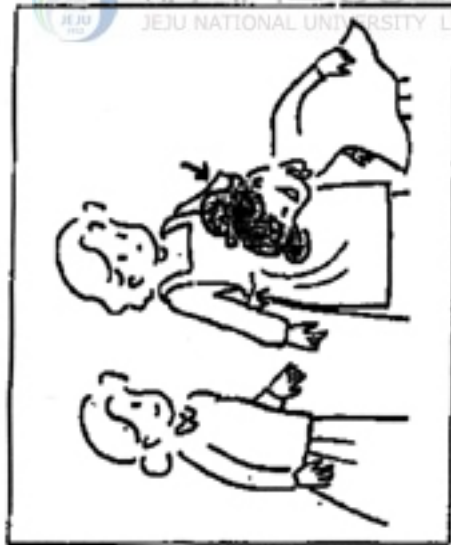


11. 나는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한다.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2.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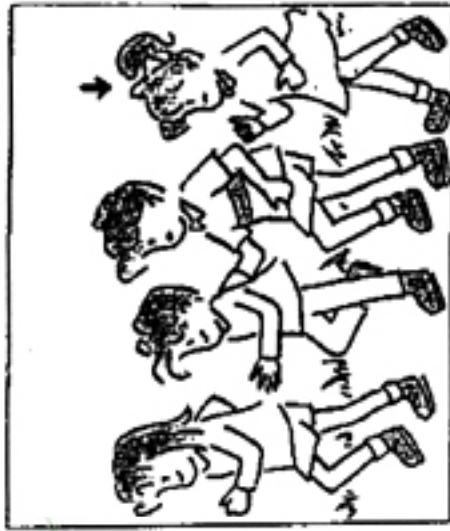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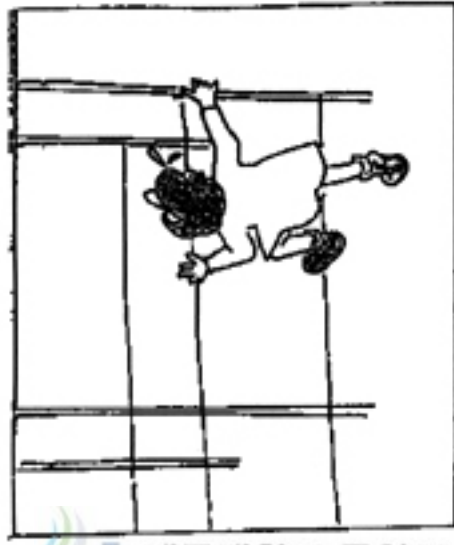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13. 나는 달리기를 잘 한다.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한다. 14. 나는 철봉 매달리기를 잘 못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한다. 15. 나는 장애물 뛰어넘기를 잘 못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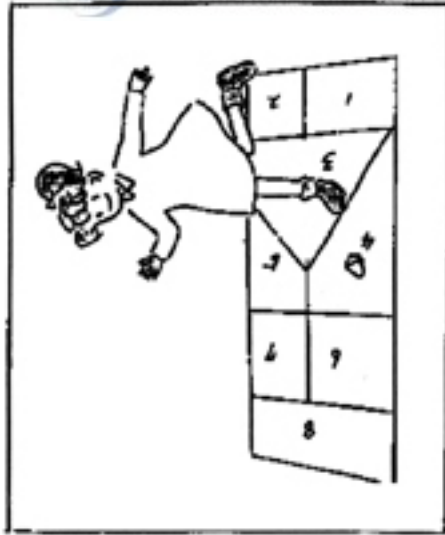
16. 나는 공놀이를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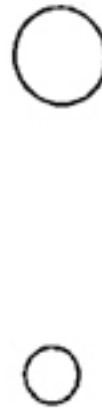
16. 나는 공놀이를 잘 못한다.



18. 나는 운동경기를 곧 잘 한다.



18. 나는 운동경기를 잘 못한다.



감 사 의 글

찬미 예수 마리아!

언제나 저를 돌봐 주시는 하느님.

본 논문이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수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철수 교수님, 김성봉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은숙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강형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분들께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마칠 즈음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시귀가 생각남은, 하느님께서 이러한 논문과 학위를 주시기 위한 시련이었나 봅니다.

대학원 등록을 마치고 감사미사를 봉헌한 후, 처음 성당을 찾았을 때, “마무리-”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심은 ‘마무리’까지 또한 은혜로서 잘 돌봐주시겠다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의지이셨음을 논문 편집 끝난 직 후 크게 깨닫습니다.

-제 나이 26세 때,

“지성과 덕행이 겸비된 여성이 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하느님. 제 대학원 수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저에게는 작은 보람이 되길 소망하며, 인격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민자가 석사학위 마쳤습니다!!!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고 민자 프란치스카 배상.